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김해공원에서 호주 출발전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 부산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싱가포르서 6주간 실습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외 취업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2025학년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작년까지 호주에 누적인원 400명을 보내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직업역량 강화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직업계고 학생 38명을 선발해 26일 호주로 20명이 출발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싱가포르로 18명이 출발할 예정이다. 이 학생들은 6주간 각 나라의 교육기관과 연계해 언어능력 및 현지 업체에서의 실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

특히 호주 과정은 용접, 조리, 제과제빵, 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싱가포르의 관광 산업 분야에 집중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김종창 기자 jkjm@skyedaily.com

# 부산시, 신발·섬유·패션산업이 한자리에

### '패페부산·부산패션위크' 개막 30일~내달 1일까지 벡스코에서 기업 387곳 참여, 미래 패션 선별 글로벌 브랜드 패션쇼 등 진행



신발·섬유·패션 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융복합 전시회이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의 장 '2025 패페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과 '2025 부산패션위크'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신발·섬유·패션 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융복합 전시회이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의 장 '2025 패페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과 '2025 부산패션위크'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9일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올해로 33회를 맞는 '패페부산'은 신발·섬유·패션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융복합 전시회로 387개 기업이 참여해 388개 부스를 운영 '갑수성의 지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친환경(ECO) 등 첨단 기술과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스타일관과 테크관을 조성해 제품 전시, 체험 이벤, 투자 기업활동(IR 쇼)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시 문화를 제시한다.

올해는 MZ세대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간이한 러너스·헬스데이' 부산 워크 웨어쇼 '부산 스포츠 굿즈 페스타' 등 다

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부산시 프로스포츠 구단 통합 굿즈 홍보전'이 처음으로 열려 롯데디자인즈, 비엔케이(BNK) 씬 여자프로농구단,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부산아이파크, OK저축은행 웬맨 프로배구단 등 5개 구단이 참여한다.

구단별 상품 전시와 팬 이벤트를 진행하며 '응원도 스타일이다'를 구호로 응원 문화를 패션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신발산업 홍보대사 이상민을 비롯한 패션 영향력자가 참여해 행



오프닝 패션쇼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에서 국내 16개 브랜드 및 인도네시아·프랑스 등 해외 4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글로벌 브랜드 패션쇼, 부산 지역 9개 대학 패션쇼, 패션 기업 투자유치 활동·투자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중앙광장에서는 참가사 제품 할인 판매전을 개최한다.

2001년 '프레타포르테 부산'을 시작으로 한·아세안패션위크와 대학패션위크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패션위크'는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돕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0일 '패페부산·부산 패션위크 개막식'은 국내외 2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합

부산의 패션산업 지력을 선보인다. 아울러 패페부산의 행사로 하나로 연계 개최되는 '부산패션경진대회'와 '부산컬렉션'에서는 브랜드 미온(MEON)이 참여해 창의성과 역량을 함께 빛낼 예정이다.

'패션 기업 투자유치 활동&투자 연결'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6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투자 상담을 거쳐 투자 유치(IR) 발표를 진행한다.

이 외에 '대학패션쇼'에는 경성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신라대, 영산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한다. 부산=김종창 기자 jkjm@skyedaily.com



창원시가 28일 '제2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 창원시, 상위 인증 본격 추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 민·관 협력 통한 전략 구체화

경상남도 창원시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창원시는 28일 시청 제2별관에서 '제2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2020년 6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구로 처음 구성됐으며 자금용 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공무원, 아동복지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우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원과 용역사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차별 중점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 방안 등에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창원형 아동친화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영역별 중점과제 및 전략사업을 확정해 '2026~2029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도 추진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박자연 기자 newsdaily1@naver.com

## 경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서 2조 원 규모 협약

### 17개 기업과 전략산업 중심 대규모 투자 성과 박완수 지사 "연 10조 투자유치 시대 본격화"

경상남도가 수도권 투자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역대급 투자 성과를 끌어냈다.

경상남도가 28일 웨스턴조선서울호텔에서 '2025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17개 기업과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소재 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잠재투자기업 네트워크 △경남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소개 △산

업 육성정책 발표 △투자협약 및 우수기업 표창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에서 가장 많은 6개 기업이 투자에 나섰다. 두산에너지리티가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해 원전산업의 선기를 여는 한편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차단기 공장을 3500억 원 규모로 증설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진해 동동지구에 첨단 물류센터를 세워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진주시에서는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나에어로디아내믹스와



경상남도가 28일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

스피어어로가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친환경 유아식품 전문기업 예모맘의산골이 유식도 200억 원을 들여 공장 연구개발 센터를 신설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사천시에서는 송월테크놀로지 리더인

항공이 각각 350억 원, 60억 원을 투자해 항공부품산업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는 한국기분과 예코리버스가 초동특별농공단지에는 씨타일에코포징이 각각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산업 투자를 추진한다.

양산시에서는 에스케이인더스트리와 이엔코가 자동차 부품 및 친환경 연료공급 시스템 제조공장을 설립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예고했다. 창원군의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항공방산용 알루미늄 소재 공장을 건립해 지역 항공소재 산업거점으로 도약한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의 핵심지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설된 '경남투자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한 결과 연간 투자유치 실적 10조 원 시대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방위원 자력융합국가산업단지(창원),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진주시천), 나노융합국가 산업단지(밀양) 등 주요 산업거점을 집중 홍보했으며 투자 우수기업 10개 사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원=박자연 기자 newsdaily1@naver.com

## BPA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성료

부산항만공사(BPA)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체계가 자리잡힌 대기업·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컨설팅과 현장 개선활동을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29일 BPA에 따르면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6년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 개선의지를 가진 신항 배후단지 입주 중소기업 6개 사가 참여했다.

이 중 5개 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컨설팅과 안전비품을 제공받고 대기업·공공기관들은 정부 예산 환급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PA는 올해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 새롭게 수립된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

### 현장형 안전관리 물품 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부산항만공사가 28일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부산항만공사

침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또 반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6차례의 협의회를 운영하며 참여사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이어갔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들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연간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비, 개선 활동비, 포상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

항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물품 지원도 주요한 성과 중 하나다.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센서, 레이저 장치 등을 비롯해 추락감지형 스마트 안전조끼, 응급키트, 보호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현장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작업중지권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계절 특성을 반영한 대응 활동 병행은 물론 종사자의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도 힘써왔다.

송상근 사장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 본 사업을 추진했다"며 "위험성평가 고도화, 종사자 참여 확대,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부산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jkjm@skyedaily.com



성주군이 28일 '초전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 성주군

### 성주 초전면 'LPG 배관망 구축' 준공식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 연료비 부담 완화

경상북도 성주군은 '초전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식을 28일 면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진행했다.

29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부가 2023년 성주군을 포함한 19개 지역에서 1차로 진행한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 위탁사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설명회·주민협의회 회의 등을 거쳐 사업실시계획을 마친 후 올해 3

월 착공해 8개월 만에 완료했다. 군은 저렴하고 안전한 연료 공급의 수혜를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군비 지원을 통한 자부담금을 최소화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저장탱크 2세트(2.45t 2기)와 5.42km의 배관망이 설치됐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약 30%의 연료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주=이현희 기자 chlee2@skyedaily.com